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시장 창출·산업 도약 기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된 6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특구 지정은 탄소융복합 제품을 만들어 실증하고 규제를 해소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국내 탄소융복합산업의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이 전략적으로 육성한 탄소산업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을 때 소재부품 자립화를 이끌 효과 산업으로 조명받은 바 있다”며 “이번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지정은 내년 1분기경에 산업부가 발표하게 될 한국 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 지사가 이번 특구 지정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탄소융복합소재는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수소 산업 등 각종 전후방산업과 융합을 비롯한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후발주자인 국내에는 제조기준이나 산업안전 기준, 혁신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지난 10여 년간 탄소산업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소재 특성상 단기간 내에 급격한 산업 성장을 달성하

송하진 도지사 “특구 지정된 전주·군산·완주 일원서 신기술개발·제품테스트

국내시장 확대·세계진입 준비”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구로 지정된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을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을 진입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송 지사는 “실증기간 내(2024년 6월까지)에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업진) 복합소재에서 1,680억원 정도를 투자해 연구소와 생산라인을 증설할 예정이고 기타 특구사업자도 60억 정도 시설 투자를 확충할 계획이다”며 “기업의 재정투자로 수혜기업을 통해 1,767억원 이상의 매출과 200억원 수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



며 양질의 도 외 기업 8개 유치 및 386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증기간 후(2024년 7월 이후)에는 국산 탄소섬유 사용증가로 소재 자립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효성첨단소재가 생산 예정인 양의 30%를 사용해 국내 시장 50%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산업연구원은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면 고용유발효과 1,166명, 생산유발효과 3,63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7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특구 지정에 따른 실증을 통해 화재 시 폼던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소방특장차 물탱크 용량을 늘리고 소형선박도 난연성으로 제조하게 돼 국민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송 지사의 설명이다.

송 지사는 “지난해 제2차 친환경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자유 특구를 지정받았고 올해에는 탄소 융복합산업에 대한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받은 패기를 이뤘다”며 “제4차, 제5차 등 지속적으로 특구를 지정받아 전라북도 산업의 대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김부겸 전 의원 7~8일 광주·전북 방문

9일 당대표 출마 선언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9일로 예정된 당대표 출마선언식을 앞두고 7일과 8일 민주화의 성지 광주와 전북지역을 우선 방문한다.



김 전 의원은 7일 광주를 찾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국 최초로 자동차 시스템을 도입한 광산구형 광장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8일에는 전주로 이동,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한 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출마선언 당일인 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직자 인사와 출마선언식을 갖는다. /유호상 기자

“공존·상생·전환”

민주 안호영 의원, 고용

환경분야 10대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 진안, 무주, 정수)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6일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안 의원은 전북 최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에 선임됨에 따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북지역 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존과 상생 그리고 전환’의 큰 틀 안에서 고용노동, 환경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안 의원은 먼저 고용노동분야에서 전국민 고용안정망 완성, 코로나19 노동현장 점검, 포스트 코로나시대 일터확산, 안전한 일터조성, 전북 고용안정대책팀 현안 해결 등을 의정과제로 피력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그린뉴딜 시스템 전면 도입, 에너지 전환체계 조기 구축, 불법폐기물처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질개선 대책 마련, 축사등 악취 배출원별 저감대책마련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민주,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전’

다주택자·법인 중부세율 ↑ 추진... “투기 뿌리뽑아야”

집값 급등으로 급속히 악화된 민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입법에 속도를 낸다.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인 ‘진짜 중부세(종합부동산세)’가 핵심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중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중부세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중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의 단호한 요구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교하고 다양한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나가겠다는 각오”라며 “중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중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당과 일부 언론은 세금 폭

탄론을 제기하는데 중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도 민주당의 주요 부동산 입법 과제 중 하나다. 박 최고위원은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뉴스시스

‘전북 대도약’ 국가예산 확보 ‘사활’

송하진 도지사·우범기 정무부지사·강승구 기초실장 등 기재부 방문 도정 핵심사업 중점 건의... 예산 확보 전략회의도

전북 대도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정무부지사, 강승구 기초실장 등 전실,국장이 세종청사로 출출동한 가운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 기재부를 방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어서 곧바로 세종 지방자치회관으로 옮겨, 기재부 반응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도 개최했다.

이같이 도의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 활동 배경에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와 13일부터 2차 예산심의회가 진행되는 중요 시점인 만큼 핵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및 대응전략을 모색, 기재부 단계에서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서이다.

송 지사는 기재부 안일환 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키맨(Key man)들을

만나 전북도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을 만나서는 2023년 세계잡버리 성공 개최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행사 기간의 직접경비(491억원)로 편성되어 변동된 여건을 반영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1,278억원으로 증액요청과 농기계 산업기반이 풍부한 전북에 새만금농지를 활용한 고품질 농기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등을 위해 용역비 5억원 반영 등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대한민국 최초 25년간 개최되고 있는 서예전북비엔날레의 우수성을 국가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서예비엔날레전용관건립 사업비로 5억원 반영과 홀로그램 기술개발및 사업화실증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전북에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3억원 반영 등을 피력했다.

또한 한훈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에게는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MOU 체결면적(172만㎡)이 1단계로 확보된 임대용지 면적(11.65만)을 초과한 상황 비인 국비 272억원 반영과 새만금 국제공방 예정지 인근에 자동차 튜닝 체험,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비로 3억원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어서 전북 세종사무소(세종자치회관)로 자리를 옮긴 송하진 도지사와 실,국장 등은 사업별 기재부 입장을 정리한후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목표달성과 함께 예산 부족액 추가 확보를 위해 기재부 실무선인 국과장을 대상으로 추가확보 필요사업 중심의 설명 활동 등을 강력히 전개기로 했다.

한편 도는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전라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